

■ 괴운(槐雲) 칼럼



인생의 다섯 번 탄생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최근 친구가 보내온 ‘인생의 다섯 번 탄생’에 대한 내용이다. 인간은 철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다섯 번째 태어난다고 한다.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생물학적 탄생>이다.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요 타의(他意)요 섭리(攝理)요 불가사의(不可思議)다.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운명이든 존재든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 세상에 내 던진 것이다. 실존 철학자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 내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타의(他意)에서 시작하여 타의로 끝난다. 나의 탄생도 타의요 나의 죽음도 타의이다. 인생에는 타의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생물학적 탄생에서 나의 존재가 시작한다. 우리는 이 탄생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탄생은 사랑할 때이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을 발견하고 체험한다. 사랑은 도취요, 황홀(恍惚)이요, 환희(歡喜)요 신비(神秘)다. 이 세상에서 이성에 대한 사랑처럼 강한 감정이 없고, 뜨거운 열정이 없고, 아름다운 희열이 없다. 사랑할 때 우리는 즐겁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다. 사랑 앞에는 양심도 침묵하고, 이성도 무력하고, 도덕도 빛을 잃고, 체면도 무너진다. 그만큼 사랑은 강하다. 사랑은 어떤 때에는 죽음보다 강하다.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나 사랑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불나비가 계속 불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생명을 끊듯이 사랑 때문에 파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 탄생은 종교적 탄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신을 체험하고, 절대자를 만나고, 초월자(超越者) 앞에 설 때다. 그것은 종교적 탄생이다. 그것은 생의 심화요, 삶의 혁명이요, 존재의 종생이다. 그것은 낡은 자아(自我)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신생(新生)이요 소아(小我)

가 대아(大我)로 비약하는 존재의 큰 변화이다. 누구나 이런 탄생을 쉽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탄생을 체험하지 않고 생을 마치는 사람이 허다하다. 종교적 탄생은 감사의 생이요, 참회(懺悔)의 생이다.

네 번째 탄생은 죽음 앞에 설 때이다. 죽음은 생의 종말이요, 존재의 부정(否定)이요, 인생의 종지부요, 일체가 끝이 나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모든 것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다. 죽음에는 허무감이 따르고, 공포감이 따르고, 절망감이 따른다. 죽음은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예고 없이 우리를 엄습한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으뜸가는 한계상황이다.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종말 앞에 서는 것이요, 허무(虛無) 앞에 서는 것이요, 한계 앞에 서는 것이다. 죽음을 심각하게 느낄 때 우리의 생은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깊어진다. 투철한 사생관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생을 살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탄생은 철학적 탄생이다. 자기의 사명(使命)을 발견하고 자각할 때이다. 그것은 철학적 탄생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의 생은 심원(深遠)해지고 성실해지고 확고해진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이다. 나의 생명이 나의 사명을 만날 때 바는 비로소 나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성숙한 자아로 성장한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사명감이다. 인간의 자각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각은 자기의 ‘사명적 자각’이다. 자기의 사명을 자각할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된다. 인간은 생리적 탄생에서 너의 존재가 시작된다. 사랑과 신과 죽음과 사명은 나의 인생에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빛을 가져온다.

부산등산회 시산제 및 정기총회

부산종친회 산하 등산회(회장 權寧寅)에서는 지난 2월 22일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서 을사년 시산제 및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송산(영현) 종친회장과 송암(성용) 명예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부산 온천장 역에 모여 버스로 금정산 남문 가는 길목까지 오른 뒤, 걸어서 남문을 지나 목적지인 전망대 봉우리에 도착하였다.

먼저 산신제 제사를 차린 후 초헌관은 송산 종친회장, 아헌관은 서암 등산회장, 종헌관은 영우 장년회장, 축관은 윤산 명예회장이 맡은 가운데 민중 총무의 집례로 제를 올리며, 한해 동안 회원들의 건강과 무탈한 산행을 축원하였다. 제례 후에는 음복 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각자 지참해 온 도시락과 제물을 펼쳐 놓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날씨가 추운 탓에 이동하여 양지바른 언덕을 찾아 모여 앉아 정기총회를 회순에 따라 진행한 결과 차기 등산회장에는 영인 회장의 사의에도 만장일치로 제9대 회장에 추대되었고, 다



른 임원도 유임키로 의결하였다. 하산 뒤에는 온천장 한 음식점에서 주꾸미와 돈육 요리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피로도 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심청전>을 읽으며 ‘효(孝)’를 생각한다

권순궁(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 부모와 자식의 관계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날, 아버지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날들이 유난히 많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부모의 자식의 관계가 있다. 부모가 없다면 자식이 어찌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해서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天倫)’이라 하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다. 가장 큰 죄도 자식이 부모에게 악질적인 패륜(悖倫)을 저지르는 ‘강상죄(綱常罪)’였다.

강상은 곧 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오상(三綱五常)에서 유래된 말로 이를 어기면 최고의 형벌을 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한 없는 사랑이 내재해 있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보자.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치사랑’은 부모의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자식에게 하는 사랑의 10%만 부모에게 한다면 효자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과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의 얼마만큼 부모에게 되돌려주는가를!

옛날이야기 중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얘기는 거의 없지만 ‘효행설화(孝行說話)’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연적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효(孝)’에 대한 교육과 강조가 필요했다. 해서 효를 모든 일에 근본이 된다는 ‘백행지본(百行之本)’으로 여겼던 것이다.

| 육친(肉親)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자기희생

자, 그림 효의 교과서라는 우리의 영원한 고전, <심청전(沈清傳)>을 한번 들여다보자. 눈 먼 아비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의 행위가 과연 효인가, 불효인가? 아버지를 위해 몸을 바쳤으니 지극한 ‘효’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내몰아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막대한 ‘불효’라고 하기도 한다.

효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효경(孝經)』에 의하면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가 물려준 것[身體髮膚受之父母]”이기에 부모가 물려준 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 한다. 즉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효의 근본인 셈이다. 그런데 심청이는 부모가 물려준 그 귀중한 몸을 사지(死地)로 내몰았으니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참적(慘惜)’이라 하여 가장 큰 불효로 여겼다.

그런데 이런 효의 공식에 의거해 심청의 행위를 불효로 규정짓다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아나, 심청의 행위가 불효막심하다니! 작품에서도 심청을 일러 하늘이 낸 효녀란 의미의 ‘출천효녀(出天孝女)’라 하여 극찬을 하고 있는데 심청의 행위가 어찌 불효인가?

그것은 심청의 행위를 ‘효’라는 봉건적 개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실상 심청의 행위는 봉건적 개념인 효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부모가 물려준 몸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효의 기본과 부모를 위해 몸을 훼손하는 고귀한 자기희생은 그 의미가 서로 충돌한다. 그래서 유교적 윤리규범이 아닌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기로 약속한 아버지를 위해 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몽운사 화주승의 말에 앞뒤 헤아려 보지도 않고 부처님 앞에 덜컥 약속한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앞질러진 물이고, 쏘아 버린 화살이다. 심청이로서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고 부처님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심봉사 집안 꼴이 한 때 끼니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가난하여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기 위해 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다.

마침 남경장사 선인들이 제수(祭需)로 쓸 처녀를 사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 앞을 못 보셔서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지만, 집안 형편이 지극히 어려워 공양미를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고 하니 나를 사가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라고 스스로 몸을 팔기에 이른 것이다.

심청이가 죽지 않고 공양미를 마련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승상덕 부인이 자신이 삼백 석을 내어줄 테니 뱃사람들에게 돌려주라 하지만 심청은 그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부모를 위해 정성을 드리는 것인데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받을 수 있으며, 뱃사람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서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심청의 행위는 봉건적 윤리규범인 ‘효’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인 것이다. 죽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젓동냥을 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키워 준 눈 먼 아비에



대한 인간적 보답, 아니 그러기에 더할 수 없는 육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부분을 <심청가>는 ‘인당수 대목’을 통해, “심청이 거동 보라.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퇴함은 부친의 정(情) 부족함이라!’”고 증거한다.

심청이가 죽기가 무서워 주저하다가 ‘부친의 장’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은 <심청가>의 ‘눈’이라 일컬어진다. 그만큼 슬프고도 처절하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 감동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지극히 나약하고 인간적인 심청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고귀한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런 정황을 어찌 봉건적 윤리규범인 효, 불효로 따질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히 자기 몸을 보존해서 부모가 물려준 것을 지킨다는 봉건적 윤리규범인 효를 초월하여 죽을 고생을 하며 자신을 키워준 눈 먼 아비를 위한 고귀한 보답인 셈이다.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친애하는 100만 죽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댁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마시고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화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안동권씨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

서울산악회 제 349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9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5년 5월 18일(일) 10시(시간엄수)
- ♣ 집합장소 : 9호선 양천 향교역 1번 출구
- ♣ 산 행 지 : 마곡나루 둘레길
-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5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서오릉은 동구릉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선왕조의 왕릉군이며 서오릉 안에는 5기의 왕릉(王陵)과 2기의 원(園)과 1기의 묘(墓)가 있는 역사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곳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5월 11일(일요일) 10시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 ♣집결지 :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광장

- ◆연락처
- 회 장 :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